

## UNAI 서울 포럼, 세계 석학들 한자리에

☞ 한옥순 정치부장 | Ⓞ 승인 2011.08.11 11:59 |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8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간 신라호텔에서 '2011 UNAI(UN Academic Impact) Forum in Seoul'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김황식 국무총리, 마이클 아담스 세계대학총장협회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대학총장 및 국내·외 공관인사, UN, UNESCO, 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대학교수 및 국제기구 고위급인사들로 구성된 연사들은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본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고등교육 역량강화, 여성역량 신장 및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개발의 교육적 관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아울러, UN Academic Impact를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허브대학'으로 선정된 전 세계 대학대표 및 학생대표 회의도 개최된다.

10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구촌 어디에선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

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 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고의 인재가 모이고 배출되는 산실인 대학들이 자국의 발전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변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UN Academic Impact’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의 놀라운 힘’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에게 큰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우리의 대학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것처럼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 날 있었던 환영 리셉션에서 ‘UN Academic Impact’ 선언이 국제사회의 인권침해와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이 교육발전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빈곤탈출과 교육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번 ‘UN Academic Impact Forum in Seoul’은 세계에서는 세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어 개도국 극빈문제 해결과 능력 배양, 지속가능한 개발 및 국제시민교육 등 10개 강령에 전 세계 대학들의 실천을 촉구하는 ‘UN Academic Impact’에 한국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